

금어기(禁漁期) 앞둔 서남해안 어촌은 지금

“참조기 보호 좋지만 생계는 …”

금어기 4월 10일 ~ 8월 10일로 늘어나

어민들 “올 4월만이라도 잠게 해달라”

올해부터 참조기 금어기(禁漁期) 법령이 개정되면서 어민들의 대안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목포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서해 남부해역의 참조기 금어기가 5월부터 7월까지였지만 올해부터 4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개정됐다. 금어기가 개정된 것은 4월과 8월에는 상품성이 떨어진 작은 고기들이 많이 잡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회복한다는 과학적 차원에서 지난해 7월 입법에 고였다.

그러나 서해 남부지역 어민들은 4월 23일까지가 참조기 조업에 최적기리며 4월 30일까지 금어기를 연장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유자망협회 임유현 회장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금어기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올해는 어민들이 이미 출어준비를 마친 상

태이기 때문에 4월 한 달간 금어기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선주 박씨는 “금어기 개정 후 첫 실시되는 것이라서 어민들이 잘 모르고 각종 어구들은 물론 어선 1척당 12~14명에 이르는 선원들을 계약하고 출어준비를 막쳤다”며 “1 항차만이라도 조업할 수 있도록 최소한 다음달 23일까지만이라도 금어기 조정을 바란다”고 애타는 심정을 털어놨다.

이에 따라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금어기를 20여 일 앞두고 갑자기 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검토해 내년부터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한 달간 목포수협 참조기 위판액은 1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유사망협회에 소속된 어선 55척은 지난해 4월 한 달간 1척당 평균 약 7천만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1 항차 출어비용은 선원 12~14명에 대한 임금, 각종 어구 등 4월 한 달간 4천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이번 금어기 연장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선주들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세발낙지 보호로 부촌꿈 기대”

신안 올 첫 금어기 설정 시범 운영

무안 2007년부터 실시 어족자원 증가

‘세발낙지 주산지’인 무안군과 신안군이 지난해 포획 등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갯벌낙지 자원량(생산량) 회복을 위해 산란기를 금어기 설정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어민 올해 첫 ‘금어기’ 결의= 신안군은 지난 23일 암해면 낙지어업인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낙지 금어기를 설정하기로 했다. 금어기는 낙지 산란기인 음력 5월 1일부터 6월 31일(양력 6월 12~8월 9일)까지 2개월 동안으로 암해면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현행법으로도 규제되지 않고 있는 낙지에 대한 금어기를 낙지 어업인들 스스로가 자체 규정을 만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신안 갯벌낙지가 생산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포획 등으로 갯벌낙지 자원량(생산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데 따

른 것이다. 시범 운영이 끝나면 점차적으로 타 갯벌마을 여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낙지 금어기 설정으로 매년 매출이었던 외지 선박의 접점을 막고 갯벌낙지 자원량 회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안군, 명품브랜드로 육성= 무안군은 지난 2007년 4월 단도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낙지 금어기’로 설정했다.

어민들은 단도만 자율공동체를 구성, 어민소득의 한 축을 담당하는 낙지 고갈을 막기 위해 ‘금어기’를 정해 두고, 불법어업 근절 운동 등 자발적인 낙지자원회복에 나섰다.

만 3년이 지난 현재 낙지자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낙지를 지역특산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낙지자원회복과 함께 ‘지리적 표지’ 등록과 생산이력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규기자 wncho@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 기공

4만9000㎡에 401억 투입
우주항공 클러스터 박차

올해 말 고흥군에 미래성장 동력이 될 산업형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고흥군은 25일 이상면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박병종 군수, 합체군 군의회 의장, (재)전남테크노파크 흥종희 원장, (주)도하에이스 김홍규 대표, (주)휴리스 한순석 대표를 비롯해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 조성 기공식을 가졌다.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는 고흥읍 호동리·두원면 학곡리 일원 4만9천 ㎡에 총사업비 401억원을 투입해 올 12월 준공되면 고분자 융복합소재사업화 지원단(아이 고분자 센터)을 비롯한 2개 기업이 입주, 300여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고분자 센터가 입주하게 되면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을 꿈꾸는 고흥군에 기업유치 촉매제 역할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전남도, 고흥군과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도하인더스트리, (주)다산엔지니어링은 고흥군에 신규법인인 (주)도하에이스, (주)휴리스를 설립, 29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해 복합소재를 활용한 풍력발전 블레이드, 요트, 자전거, 항공 부품산업 등 신소재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김 메고 밭갈이… 영농 준비 바쁘다

25일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틀녘에서 주민들이 밭갈이를 하며 본격적인 영농준비를 하고 있다. /구례=위치경기자 jrwi@

원로조합원 한방검진

곡성농협

곡성농협(조합장 빙기윤)이 올해 처음으로 원로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방검진 사업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곡성농협은 최근 관내 76세 이상

원로, 독거조합원 249명을 선정해 곡성을 2개 한의원에서 한방검진, 침, 둥, 각종 물리치료 등 복지사업을 실시했다. 곡성농협은 매년 실시해 오는 건강검진 사업에 이어 총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한방검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경중기자 kjkm@

진해만 ‘마비성폐류독소’ 검출

전남산 패류는 안전

국립 수산과학원은 22~23일 전국 연안에서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에 있던 굴, 진주腔치(흉합) 등 조개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100mg당 41~75㎍의 ‘마비성폐류독소’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남지역의 경우 여수시, 목포시, 고흥군 등지의 패류에서는 아직까지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진해만에서는 매년 봄 ‘마비성폐류독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빨리 검출됐다.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독소 함량은 허용기준치(100g)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과학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패류독소 조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패류독소 상습 발생해역인 경남 진해만의 양식 어업인에게 양식 패류를 조기에 수확하거나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7~8월 이후 수확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수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패류독소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기동기자 song@

국립 수산과학원은 22~23일 전국 연안에서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에 있던 굴, 진주腔치(흉합) 등 조개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100mg당 41~75㎍의 ‘마비성폐류독소’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남지역의 경우 여수시, 목포시, 고흥군 등지의 패류에서는 아직까지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진해만에서는 매년 봄 ‘마비성폐류독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빨리 검출됐다.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독소 함량은 허용기준치(100g)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과학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패류독소 조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패류독소 상습 발생해역인 경남 진해만의 양식 어업인에게 양식 패류를 조기에 수확하거나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7~8월 이후 수확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수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패류독소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기동기자 song@

‘무지개 송어’ 바다에서도 양식한다

도 수산기술사업소 시험 성공

민물에서 자라는 냉수성 어종인 ‘무지개 송어’가 겨울철 바다양식의 새로운 희망어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고흥지소는 민물 무지개 송어의 시험양식에 성공, 지난해 12월초 양식어민 2명에게 바닷물에 적응시키는 순치(順治=길들이기)기술 등을 이전했다.

고흥지소는 월동기(11~5월)에 가우리 양식장이 비어 있는 점에 착안, 지난해 무지개 송어의 양식을 시도했다.

고흥지소는 바닷물 염도를 점차 높이는 순차과정 등에 대해 특허를 출원 중이며 내년에는 민간 기술이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어민들은 고흥군 도약을 확도앞 해상가우리 양식장에 경북 삼주산 무지개 송어 치어 5천마리를 입식, 4개월 째 키운 결과 현재 1kg 남짓 성어로 자라 출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격도 민물송어가 kg당 8천원 남짓 거래되고 있으나 바다양식 송어는 1만2천원 원 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돼 짭짤한 소득을 안겨줄 전망이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구제역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

전남도 가축시장 재개장

경기도 포천의 구제역 위험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전남도내 가축시장이 재개장된다.

전남도는 지난달 29일 경기 포천 첫 소농가에서 6차 발생을 마지막으로 추가발생이 없고 6차 발생 경계지역에 대한 협력 및 입상 관찰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23일 국내 모든 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휴장했던 도내 가축시장도 재개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포천에서 구제역 발생하자 도 예비기 등 긴급방역을 실시해왔다.

역비 6억5천만원을 들여 모든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방역차량 등 소독장비 1천730대를 충동원에 매주 1회 이상 일제소독을 실시해왔다.

전남도 관계자는 “종국과 동남아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매주 일제 소독을 하고 예찰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효성공인증개사

T.062-376-4056
H.010-3126-1515

* 임야(농장.묘지적합)

- 나주.봉황 3,730평
(㎡당 10,600원)- 매가 1억3천만원
(분할매각가능)

* 독서실 임대

- 동구 대의동 동부경찰서 인근

- 고시화원내 독서실 170평

- 보1억5천만 원390만원
(관리비 포함)

*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 244평 건평 393평
(병원.사무실직합)

- 매가 19억

- 보증금 1억6천만 원830만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종
재산리모델링이 필요하
시면 연락주십시오.

급매물 즉시 증가

대인동삼일부동산

☎ FAX: 02-1772-700 011-602-23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증정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래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부지구함

■ 위치장소 : 제한없음

■ 용량 : 제한없음